

# 미화된 인생고백, 과연 진실한가

## 억지로 끌어낸 과거, 대필로 윤색... 상업적 소재 극복해야

김기태

광주대 강사·출판학

요사이 우리 출판계에는 성공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른바 '자전적(自傳的) 에세이' 혹은 '자전 고백 소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중심으로 엮은 것인 만큼 저자들의 이력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양하면서도 한마디로 기구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별을 쥐고 있는 여자》(전 3권), 《장미와 샴페인》(전 2권), 《뜨거운 가슴에 좌절이란 없다》,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등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거나 내가 그와 같은 경우에 처했다면 어땠을까 등 호기심과 연민의 감정이 교차하는 야릇한 흥분을 느끼기에 족하다. 게다가 그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시련을 딛고 이제는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유명인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도덕불감증까지 엿보여

물론 저자들이 살아온 방법 속에 올바른 삶의 방향이 제시됨으로써 독자들에게 유익한 책 읽기를 선사하는 측면이 있다면 일단 베스트셀러로서의 자리매김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일까. 어느 개인의 다시는 돌아보지 않은, 심지어 숨기고 싶은 과거를 억지로 끄집어낸 다음, 그것을 좀더 극적으로 포장해서 말 그대로 상품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의 저의가 스며들지는 않았을까. 아마도 출판의 정기능을 논하려면 먼저 후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기를 맞고 있다는 출판계의 입장에서 보면 팔릴 만한 책에 애착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팔리는 책들이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 하는 측면과 그로 인한 여파가 독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 있다. 가령 '에인'이라는 드라마 한 편으로 우리 사회가 온통 '외도 신드롬'에 빠져드는 현상을 생각해 보자. 아니, 대중들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침투되는 공중파의 특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책은 분명 저자와 독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는 매체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공중파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전달과 수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피드백은 출판업계 특성상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허구(픽션)임을 전제로 나오는 창작소설과는 달리 '자전'이니 '고백'이니 '실화'니 하는 문구를 앞세우는 책들에서는 일단 독자들이 내용 자체를 사실로 인지한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출판계의 관행은 어떠한가. 정말 한 줄의 보탬도 없이 사실 그대로 씌어진 것이며 더구나 저자로 표기된 주인공 스스로 써낸 글일까. 대답은 십중팔구 '아니다'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여기서 우리 출판계의 도덕불감증 양상이 엿보인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엮어내는 인생 자체가 출판의 좋은 소재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접어두더라도, 어떻게 살았는지 재미만 있으면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 할지라도 현실이 그것을 극복했으므로 미화해도 된다는 식의 발상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다.

### '대필 혐의'도 짚어

그밖에도 여성이 주인공이자 저자로 등장하는 책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것들은 잘 팔리는 책의 대열에서 선봉장이 되어 서점마다 요지를 점령하고 있다. 《여성이어, 테러리스트가 돼라》, 《스물셋의 사랑 마흔아홉의 성공》, 《미소 한 잔 눈물 두 스푼》,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때론 나도 미치고 싶다》, 《애첩 기질 분처 기질》,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 등. 제목만 보더라도 베스트셀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일까, 독자들의 시선은 하염없이 그 속으로 빠져든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책을 지은 이들은 한결같이 각자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임에 분명하지만 글쓰기와는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책을 읽어보면 문장의 수준이 전업작가 뺨칠 정도로 깔끔하다. 왜 이해야 저자의 대열에 합류했을까 의심스러운 정도로.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님을, 뻔한 관행에 따라 너무도 쉽게 책 한 권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쉽사리 깨달을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들은 소재를 제공했을 망정 직접 글을 쓰지는 않았으므로 '대필(代筆)'의 혐의가 짙다는 말이다.

허구임을 전제로 한 창작소설과 달리 '자전'이나 '고백' '실화'란 문구를 앞세운 책은 독자들이 내용 자체를 사실로 인지한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어떻게 살았는 재미만 있으면 된다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라도 극복을 했으면 미화해도 된다는 발상은 지나친 게 아닐까.

자전적 인생고백 에세이류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많다.



혹자는 강변할지도 모른다. 출판행위 자체가 대중을 상대로 공표하는 것일진대 어찌 다듬어지지 않은 그대로 내놓을 수가 있느냐고. 물론 단순한 교열 차원의 윤문을 타하지는 않는다. 대가(大家)의 작품도 출판과정에서 교정 단계를 거치는 판국에 하물며 문학적 성과가 거의 없는 사람의 글임에야. 하지만 윤문이 아닌 윤색을 거쳐 미화의 단계로 발전했다면 그 순간 이미 그것은 자전도 고백도 실화도 아님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오로지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노리고 독자들의 말초신경 건드리기에만 집착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매한 대중들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우상을 양산하는 일에 열중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언젠가 칠순이 넘은 할머니가 그동안의 일기를 모아 책을 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60이 넘은 나이에야 손자들이 공부하는 틈에 끼여 한글을 깨쳤으며, 그때부터 당신이 글을 알게 되었다는 감동에 겨워 틈틈이 느낌을 적게 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현재뿐 아니라 어렴풋한 과거까지 망라하는 것이었다. 맞춤법이 맞을 리 없고 철자법도 엉망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방구석에 감추어진 할머니의 기록을 발견한 큰딸이 앞장서서 책을 만들기 이르렀다. 그것도 가족들끼리 협의한 끝에 비매품으로. 물론 전문가의 윤문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읽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교정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어느 대문장가의 글 못지않게 감동적이었다. 어렵게 숫자를 깨친 날 흩어져 사는 자식들의 집으로 난생 처음 전화를 걸던 감동, 오래 전 어린 아들을 배양이 끝에 먼저 보내야 했던 아픈 기억 등 투박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글 속에는 한 할머니의 인생역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보편적인 삶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까 말이다.

### 질박한 내용이 더 감동적

그렇다. 베스트셀러가 곧 좋은 책은 아니듯이, 좋은 책이란 곧 매끄러운 문장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비록 장인의 손에서 빛어낸 고급 도자기는 못될 망정 오랜 세월 우리의 부업을 지키며 유용하게 쓰인 질그릇처럼 생긴 그대로의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책이 곧 좋은 책이 아닐까. 굳이 앞서 열거한 책들의 내용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그네들이 이미 스타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대중의 추앙을 받는 스타답게 자신들의 삶이 의미 있고 교훈적이라면, 그리하여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면 기왕에 일말의 거짓도 없는, 진실에 입각하여 스스로 쓰고 다듬어 개정판을 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다. ❖